

ㄷ 不規則動詞의 歴史的 變化*

유 필 재
(울산대학교)

Yoo, Pil-Jae. (2009). On the Historical Change of *t*-irregular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5.1, 157-175.

This paper is intended to be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irregular verbs in Korean. In Korean, some verbs which have stem final *-t* change *t* to *l* before a vowel. Verbs of this kind are called “*t*-irregular verbs” in Korean grammar. It has been recognized by Korean linguists that there were about 20 *t*-irregular verb stems in Middle Korean. Some verbs became obsolete and others underwent morphological change. As far as Seoul Korean is concerned, changes took two directions. Some *t*-irregular verb stems had changed to *-l* final verb stems by the Middle Korean period and others to *-li* final verb stems by the beginning of the Contemporary Korean period; for example, *kit*/*kil*- (‘draw’), *tatAt*/*tatAl*- (‘arrive’) changed to *kil*-, *tatAl*-. In Contemporary Korean, there are just a few *t*-irregular verb stems.

Key words: *t*-irregular verbs, morphological change, Middle Korean

1. 序 論

본고의 목적은 국어의 “ㄷ 不規則動詞”가 겪은 通時的인 변화를 기술, 설명하는 데에 있다. ㄷ 불규칙동사란 동일한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보이는 부류의 이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술하려는 변화 역시 形態變化가¹ 주가 되고 의미 변화가 부수적으로 언급된다.

ㄷ 불규칙동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어간들의 기저형 설정을 논의한 이론적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방언을 대상으로 표준어의 불규칙동사에 대당되는 방언형을 제시한 기술적 논의이다.² 둘 다 공시론적인 연구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2-A00116).

¹ “再構造化(restructuring)”란 용어도 사용된다. 재구조화란 King (1969: 81)에서 “基底表示의 변화(any change in underlying representations)”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국내에서 “基底形의 변화”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 자주 사용하고 있다.

² ㄷ 불규칙동사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崔明玉 (1985), 韓榮均 (1990) 참조.

기존 논의들의 관심이 이 두 부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국어에서 ㄷ 불규칙동사에 속하는 어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현재 혹은 이전 시기에 ㄷ 불규칙동사였던 어간들은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었는지에 관한 통시론적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다.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2장에서는 한글 문헌자료를 통해 후기중세국어에서 ㄷ 불규칙동사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후기중세국어의 ㄷ 불규칙동사 목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현대국어와의 비교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표준어와 방언 모두가 된다(3장). 두 시기의 목록이 갖추어지면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 변화의 내용을 기술하고 유형을 세울 수 있다(4장). 결론에서 변화의 기제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본다.

2. 後期中世國語의 ㄷ 不規則動詞

기존 연구에 의해 현재까지 알려진 後期中世國語의 ㄷ 不規則動詞들을 아래에 제시한다.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위해 편의상 어간에 번호를 붙여 놓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간 형태가 바뀌어도 번호가 같으면 동일한 어간의 반사형으로 본다.

어간의 성조 표기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평성은 L, 거성은 H, 상성은 R로 표기하였다. 자음 앞에서는 상성으로, 모음 앞에서는 평성으로 교체되는 이른바 “유동적 상성”은 R!으로 표기한다. 한편 후기중세국어 1음절 용언 어간 중에는 일반적인 평성 어간과 비슷하면서도 후행하는 매개모음어미를 평성으로 교체시키는 불규칙적인 어간 성조가 존재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듣! (聞)’³를 규칙적인 평성 어간인 ‘먹-(食)’와 비교해 보면 (1)과 같다.

- (1) 먹고 LH, 머거서 LHH, **머그니 LHH**
 듣고 LH, 드러서 LHH, **드르니 LLH**

‘머그니 LHH’에서는 매개모음 부분이 거성임에 비해 ‘드르니’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평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모음어미의 성조 교체가 ‘듣! (聞)’와 같은 부류의 어간 성조를 L!으로 표시해 둔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후기중세국어에서 ㄷ 불규칙동사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20개이다.⁴

³ 규칙용언이면서 어간 말음이 ㄷ인 어간과 구별하기 위해 불규칙동사에는 “!(느낌표)”를 부가해 둔다.

⁴ 모두 ㄷ 불규칙동사이므로 어간 뒤에 불규칙 표시(!)는 생략한다.

① 걷- R!(步), ② 견- R!(織), ③ 긴- R!(汲), ④ 곧- L!(曰), ⑤ 논- R!(焦), ⑥ 듣- L!(聞), ⑦ 뜯- R!(落), ⑧ 뜯- L!(走), ⑨ 묻- R!(問), ⑩ 싣- R!(載), ⑪ 싣- R!(得), ⑫ 흩- R!(散), ⑬ 분- R!(潤, 殖, 脹)

⑭ 다들- LL!(着), ⑮ 씨들- HL!(覺), ⑯ 아천- LH(厭), ⑰ 일꾼- LL!(謂)

⑱* 전- R!(鹽)⁵, ⑲ 견-!(油), ⑳ 연- R!(配)

이 중 ‘⑱* 전- R!(鹽), ⑲ 견-!(油), ⑳ 연- R!(配)’는 ㄷ 不規則動詞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어간들이다. 우선 ‘⑲ 견-!(油)’는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견-!’로 반사되어 나타나는데 어두 자음의 변화는 ‘질삼 > 길쌈, 짓 H > 깃’에서와 같은 역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⁶

‘⑳ 연- R!(配)’는 기존 고어사전에서 ‘얼-’(劉昌惇 1964, 南廣祐 1997)나 ‘어르-’(한글학회 1992)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어르니 LHH(삼강행실도 忠: 6b)’와 같은 활용형을 보면 기본형이 ‘얼-’일 수는 없다. ‘어러 LH(석보상절 23: 35a), 어루물 LHH(내훈 2上: 3b)’같은 활용형까지 고려하면 기본형은 ‘어르- LH’이거나 ‘연- R!’이어야 한다. 둘 중 어느 것을 기본형으로 할 것인가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 달렸다.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현재까지 하나 발견되었다.

(2) 다솨 羅刹이 이셔 암龍이 드외야 毒龍을 얻더니 RLH <月印釋譜 7:27b>

예문 (2) ‘얻더니’는 후기중세국어에서 {得}을 의미하는 ‘연- R’의 활용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문 원문을 찾아 보면 이런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문 원문은 《觀佛三昧經》 권7에 있다.

(3) 爾時彼穴有五羅刹, 化作女龍, 與毒龍通

한문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얻더니’는 ‘通’의 번역이므로 {配}의 의미를 가진 ㄷ 불규칙동사 ‘연-!’의 활용형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2)의 예문이 확보됨으로써 {配}를 의미하는 후기중세국어 동사는 ‘얻더니 RLH, 어러 LH, 어르니 LHH, 어루물 LHH’같은 패러다임을 가지는 ㄷ 불규칙동사임을 확인하게 된다 (유필재 2005: 645-652).⁷ ‘연-!’는 현대국어에서 와서는 死語가 되었다.

⁵ *는 재구형을 가리킨다.

⁶ 유필재 (2005: 641-645) 참조.

⁷ 김성규 (1995: 389f)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명사 ‘얼운 RH’에서 ‘얼’ 부분이 상성인 점은 문제가

‘^{⑱*}전·! R!(鹽)’는 어간 형태가 변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본고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鹽}을 의미하는 동사는 ‘절:.’이다. 어간 ‘절:.’은 19세기까지 소급된다.

- (4) 동침이 … 무를 … 마초 저려 흐로 지나 다 절거든 <閨閣叢書 9a>(1869)
절다 TJYEL-TA, TJYEL-E, TJYEN. S'imprégner <韓佛字典 552>(1880)

그러나 18세기까지 이 어간의 말음은 ‘ㄹ’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5) 酒糟透了 술에 젖다 (다라순 돌 덩투지) <蒙語類解 補 20a>(1768)

(5)에서 몽골어 ‘덩투지’가 국어의 ‘젖다’에 해당하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debtü-’는 ① 딱딱한 것이 수분을 먹어서 부드러워지다 ② 술에 곧드레만드레 취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小澤重男 1983)⁸. (5)의 예문은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⁹ (5)를 現代國語로 번역하면 ‘술에 절다’ 정도가 된다. (5)의 예문을 통해 자음 앞에서 사용된 이형태 ‘전’을 확인할 수 있고 18세기까지는 이 어간이 ㄷ 불규칙동사였음을 알 수 있다. ㄷ 불규칙동사 ‘전:.’는 현재 서울방언에도 남아 있어 이러한 추론을 지지해 준다.¹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ㄷ 불규칙동사였던 ‘전:.’가 표준어에서 어간 말음이 ‘ㄹ’인 ‘절:.’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다. ‘전:.’는 ㄷ 불규칙동사 어간 변화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3. 現代國語의 ㄷ 不規則動詞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ㄷ 불규칙동사의 목록을 아래에서 검토해 본다. 기존 연구에서 ㄷ 불규칙동사는 주로 표준어의 그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는 ㄷ 불규칙동사를 먼저 제시한다. 한편 후기중세국어를 기점으로 한 역사적 변화의 결과는 표준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서울방언과 그 밖의 방언에 실제로 존재하는 ㄷ 불규칙동사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된다. ‘얼우신, 얼운사름’에서도 역시 ‘얼’은 상성이다. 후기중세국어의 공식적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⁸ 따라서 ‘젖다’를 ‘젓·L(濡)’로 해석할 가능성은 배제된다.

⁹ ‘젖다’의 어간 부분 중성이 ‘ㅅ’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세기는 중성의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기였다. 李基文 (1972: 194) 참조.

¹⁰ ㄷ 불규칙동사인 ‘전:!’에 대해서는 유필재 (2005: 640f) 참조.

하도록 한다.

3.1. 標準語

표준어에서 ㄷ 불규칙동사로 인정되는 어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어간에 대한 기술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른다.

①걸:-:(步), ②결:-:(織), ③긴:-:(汲), ⑤눈:-:(焦), ⑥듣:-:(聞, 效), ⑦뜯:-:(落), ⑧단-
(走), ⑨묻:-:(問), ⑩싣:-:(載), ⑬분:-:(潤, 殖)

⑱결:-:(油), [21]결:-:(알을~)

⑮깨닫-(覺), ⑰일컫-(謂)

앞서 제시한 후기중세국어 ㄷ 불규칙동사 목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없어진 어간이 있다. ‘④근- L!(曰), ⑪싣- R!(得), ⑫흔- R!(散), ⑯아천- LH(厭), ⑳얻- R!(配)’는 현대국어에서 死語가 되었다.

둘째로 부분적인 의미 변화를 겪은 어간이 있다. 후기중세국어에서 ‘⑬분- R!’는 자료상 {潤, 殖, 脹}의 세 가지 의미가 확인된다.

- (6) a. 록두과 불근 풋과 거믄 콩 각각 물에 듭가 분거든 겁질 벗겨 <구급간 이방 6:10b>
- b. 息 ㅅ ㅅ ㅅ 부러날 ㅅ <신증유합 下:50b>
- c. ㅅㅅ이 분디 아니면 받드시 온몸이 그러흐느니라 觀上不脹 必遍體皆然 <두창집요 상:24a>

예문 (6)에서 a는 {潤}, b는 {殖} 그리고 c는 {脹}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중 {脹}의 의미는 현대국어에 와서 없어지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 {脹}은 ㅅ 불규칙동사인 ‘붓:-’가 쓰인다.

셋째로 현대국어에서만 확인되는 ㄷ 불규칙동사가 있다. ‘⑥듣-(效)’는 ‘두통에 잘 듣는 약’같이 쓰이는 어간인데 후기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¹¹ 또 ‘닭 알 걸는 소리’같이 사용되는 [21]결:-:(알을~) 역시 후기중세국어에서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간의 형태가 바뀐 예가 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⑱절:- (鹽)’이고 다른 하나는 ‘⑭다다르-(着)’이다. ‘다듣-! > 다다르-’와 같은 변화를 겪

¹¹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현대일본어 역시 {聞}과 {效}를 의미하는 동사가 동일하게 ‘kiku’인 점이 흥미롭다.

은 것이다.¹² ‘다든! > 다다르!’는 앞서 언급한 ‘전! > 절!’의 변화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 사실은 ㄷ 불규칙동사의 변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음을 암시해 준다.

3.2. 方言

3.2.1. 서울方言

이전 시기의 ㄷ 불규칙동사들이 서울방언에 반사된 양상을 유필재 (2006)에 기대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④근-L!(曰), ⑧든-L!(走), ⑪신-R!(得), ⑫흔-R!(散), ⑯아천-LH(厭), ⑳연-R!(配)’가 死語가 된 점은 표준어와 같다. ‘⑫결:-R!(織)’와 ‘⑦든:-R!(落)’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상의 공백인지 死語인지 확정할 수 없다.

표준어와는 달리 서울방언에서 순수한 ㄷ 불규칙동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개뿐이다.

①걸:-R!(步), ⑥듣:-R!(聞, 效), ⑨묻:-R!(問), ⑮깨닫:-R!(覺), ⑰일컸:-R!(謂)

이 다섯 어간을 제외한 후기중세국어 ㄷ 불규칙동사는 서울방언에서 다른 어간 발음을 가진 형태와 공존하거나 아예 다른 형태의 어간으로 변화하였다.

변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어간 발음이 ‘ㄷ’인 어간으로의 변화이다. ‘③간:-R!(汲), ⑬분:-R!(潤, 殖), ⑱전:-R!(鹽)’는 ㄷ 불규칙동사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간 발음이 ‘ㄷ’인 ‘길:-, 붙:-, 절:-’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절:-’는 ㄷ 불규칙동사 형태인 ‘전:-!’를 제치고 표준어로까지 채택되었다. 개신형인 ‘절:-’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길:-’는 자음 어미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불완전동사로 처리해 둔다. 어간 형태 변화(혹은 재구조화)의 초기 단계에서 신형은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7) ?, 길어 먹다, 길:라 간다

둘째로 어간 발음절이 ‘ㄹ’인 어간으로 변화한 부류가 있다. ‘⑲결:-R!(油), ⑭다담-(-着)’는 각각 ‘겨르-, 다다르!’와 공존하고 있다. ‘다다르!’는 ‘다담!’을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그런데 변화의 양상이 위의 두 부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예가 있다. 후기중세국어의 ‘⑤눌-R!(焦)’와 ‘⑩신-R!(載)’에 해당되는 어간이 그러하다. 서울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ㄷ 불규칙동사인 ‘눌:-’가 쓰이지만 ‘눌:꾸’와 같은 활용

¹² 북한의 문화어는 ㄷ 不規則動詞인 ‘다담!’를 표준어로 채택하고 있다.

형도 조사되었다. 어간 말음이 ‘ㄹ’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음인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후행하는 어미를 경음화 시킨다는 점에서 어간 말음이 ‘ㄹ’인 다른 용언과 다르다.

또한 서울방언에는 ㄷ 불규칙동사인 ‘싯:’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방언에서 {載}를 의미하는 동사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 (8) a. 싯:꾸 있다 · 싯:꾸 와서 · 싯:른다, 싯:어라, 싯:으면
- b. 싯:꾸 · 싯:찌 마라 · 싯:른다, 싯:어라, 싯:으면 · 싯:으니깐

(8a)에서 어간 ‘싯:’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8b)는 ‘눌:꾸’와 교체 양상이 같다. 기술적으로 보면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보이는 셈이지만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어간 말음이 ‘ㄹ’인 것으로 해 둔다. 즉 서울방언에서 {載}를 의미하는 동사 어간은 ‘싯:’와 ‘싯’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ㄷ 불규칙동사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대 서울방언에는 후기중세국어 ㄷ 불규칙동사 중 2/3 이상이 다른 형태의 어간으로 변화했거나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서울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류의 범위는 매우 좁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방언에서도 확인된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도록 한다.

3.2.2. 그 외 방언

기존 연구논저와 자료집을 참조하여 서울방언 이외의 개별 방언에 존재하는 ㄷ 불규칙동사들은 검토하기로 한다.

3.2.2.1. 중부방언

중부방언 중 충북 옥천방언에 어간 말음이 ‘ㄹ’인 ‘③질-(汲)’가 보고되었다(曹成貴 1983: 64). 서울방언의 ‘길:’와 ㄱ 구개음화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고 어간 말음이 바뀐 점은 같다. 나머지 ㄷ 불규칙동사는 標準語와 같다.

중부방언과 관련해서는 영동방언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동방언에는 ㄷ 불규칙동사가 없다. 대부분 어간 말음이 ‘ㄹ’인 어간으로 바뀌었다.

삼척과 고성방언을 자료로 한 金聖鐸(1978: 31, 1980: 19f, 1981: 18)에 의하면 이 방언에서 표준어의 ㄷ 불규칙동사는 다음과 같은 어간에 대응된다.

- ①결-(-步), ②절-(-織), ⑤눌-(-焦), ⑥들-(-聞), ⑨물-(-問), ⑩싯-(-載), ⑬뿔-(-殖), ⑭다달-(-着), ⑮깨달-(-覺), ⑰일결-(-謂)

영동 남부방언을 기술한 김봉국(2001: 34)에서는 ‘①결-(-步), ⑥들-(-聞)’를,

영동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박성중(1998: 87)에서는 ‘①걸ᄃᆞ:-(-步), ⑨물ᄃᆞ:-(-問), ⑩실ᄃᆞ:-(-載)’를 보고하고 있는데 두 논문 모두 해당 방언에 ㄷ 불규칙동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3.2.2.2. 서남방언

ㄷ 불규칙동사의 어간 형태 변화는 전북과 전남방언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 蘇江春(1983: 67f)처럼 다양한 변화를 보고한 경우도 있지만¹³ 대체로 전북방언에서는 이전 시기의 ㄷ 불규칙동사가 어간 말음이 ‘ᄃᆞ’인 어간으로 변화되었거나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방언에서 ‘①걸ᄃᆞ:-(-步), ②궐ᄃᆞ:-(-뜨게질하다), ③궐ᄃᆞ:-(-汲), ⑤늙ᄃᆞ:-(-焦), ⑩싫ᄃᆞ:-(-載), ⑨묻ᄃᆞ:-(-問)’가 (崔泰榮 1981: 80-89), 전북 부안방언에서 ‘③궐ᄃᆞ:-(-汲), ⑤늙ᄃᆞ:-(-焦), ⑨묻ᄃᆞ:-(-問), ⑩싫ᄃᆞ:-(-載), ⑬부르ᄃᆞ:-(-殖), ⑥듣ᄃᆞ:-(-聞)’가 보고되었다 (김옥화 2001: 102f). 전북 임실방언을 대상으로 한 沈炳起 (1985: 61)에서도 해당 방언에서 ‘⑥듣ᄃᆞ:-(-聞)’만이 유일한 ㄷ 불규칙동사임을 보고하고 있다. 전북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김규남(1991)에서도 ‘①걸ᄃᆞ:-(-步)~궐ᄃᆞ:-(-), ③궐ᄃᆞ:-(-汲)~궐ᄃᆞ:-(-), ⑤늙ᄃᆞ:-(-焦)~늙ᄃᆞ:-(-), ⑨묻ᄃᆞ:-(-問)~묻ᄃᆞ:-(-), ⑩싫ᄃᆞ:-(-載)~싫ᄃᆞ:-(-)’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 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가 말음이 ‘ᄃᆞ’인 어간과 공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전북에 비해 전남방언은 ㄷ 불규칙동사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적다. 전남 고흥방언을 대상으로 한 배주채(1998: 98, 131)에 관련 보고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③질르ᄃᆞ:-(-汲)’와 같은 소수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표준어의 ㄷ 불규칙동사는 이 방언에서 말음이 ‘ᄃᆞ’와 ‘ᄃᆞ’인 어간에 대응된다.

①궐ᄃᆞ:-(-步)~걸ᄃᆞ:-(-), ⑨묻ᄃᆞ:-(-問)~물ᄃᆞ:-(-), ⑩싫ᄃᆞ:-(-載)~실ᄃᆞ:-(-), ③질르ᄃᆞ:-(-汲)

서남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기갑(2001: 231)에서는 서남방언에 ㄷ 불규칙동사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①걸ᄃᆞ:-(-步), ⑤늙ᄃᆞ:-(-焦), ⑨물ᄃᆞ:-(-問), ⑩실ᄃᆞ:-(-載)’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¹⁴

결국 전북과 전남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서남방언 역시 ㄷ 불규칙동사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후기중세국어 ㄷ 불규칙동사에 해당되는 어간들은 전북에서는 ‘ᄃᆞ’ 어간으로, 전남에서는 ‘ᄃᆞ, ᄃᆞ’ 어간으로 변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¹³ 전북 남원방언을 대상으로 ㄷ 불규칙동사인 ‘①걸ᄃᆞ:-(-步), ⑨묻ᄃᆞ:-(-問)’와 ‘⑤늙ᄃᆞ:-(-焦), ⑩싫ᄃᆞ:-(-載)’가 제시되어 있다.

¹⁴ 강희숙 (1993)에서 제시된 전남 장흥방언은 변화의 양상이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다.

①걸ᄃᆞ:-(-步)~거르ᄃᆞ:-(-)~궐ᄃᆞ:-(-)~궐ᄃᆞ:-(-), ③궐ᄃᆞ:-(-汲)~기르ᄃᆞ:-(-)~궐ᄃᆞ:-(-), ⑥듣ᄃᆞ:-(-聞)~드르ᄃᆞ:-(-), ⑤늙ᄃᆞ:-(-焦)~늙ᄃᆞ:-(-), ⑬부르ᄃᆞ:-(-殖)~부르ᄃᆞ:-(-)~부르ᄃᆞ:-(-), ⑩싫ᄃᆞ:-(-載)~싫ᄃᆞ:-(-)

3.2.2.3. 동남방언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고 ㄷ 불규칙동사와 관련된 보고도 일치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남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는 말이 ‘ㄹ’인 어간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⁵

경북에서는 의성방언에 ‘⑤눌ᄂ-:(焦)~눌ᄂ-:, ⑦듣ᄂ-:(落)~들ᄂ-:’같은 변화 양상이 보고되었다(申承遠 1982:62f).¹⁶ 안동 방언에도 ‘①걸ᄂ-:(步), ⑨물ᄂ-:(問)’나(李東華 1984: 18), ‘③질ᄂ-:(汲), ⑤눌ᄂ-:(焦), ⑩실ᄂ-:(載)’가 존재한다(趙信愛 1985: 78-83).

경남방언은 경북방언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한 듯하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ㄷ 불규칙동사 및 변화된 어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경남 거창방언 - ⑩실ᄂ-:(載), ⑮깨달ᄂ-:(覺)(金永泰 1985: 104), ⑤눌ᄂ-:(焦), ⑥듣ᄂ-:(聞), ⑩실ᄂ-:(載)¹⁷(朴明淳 1986).

경남 진양방언 - ⑩실ᄂ-:(載), ⑬불ᄂ-:(殖), ⑮깨달ᄂ-:(覺)(김형춘 1985: 15)

경남 산청방언 - ①걸ᄂ-:(步), ⑤눌ᄂ-:(焦), ⑥듣ᄂ-:(聞), ⑨물ᄂ-:(問), ⑬분ᄂ-, ⑩실ᄂ-:(載)(裴秉仁 1983: 117).

경남 부산방언 - ⑤눌ᄂ-:(焦), ⑬불ᄂ-:(殖), ⑮깨달ᄂ-:(覺), ⑩실ᄂ-:(載)(김봉모 1991: 7).¹⁸

3.2.2.4. 제주방언

후기중세국어의 ‘④근ᄂ-:(田)’가 현대 제주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인 ‘근ᄂ-’와¹⁹ ‘ㄹ’로 공존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李崇寧 1978: 126). 제주방언의 ㄷ 불규칙동사에 대해서는 정승철(2001)의 보고가 가장 포괄적이다. 정승철(2001: 309)에 의하면 제주방언에서는 대부분의 ㄷ 불규칙동사가 어간 말이 ‘ㄹ’인 어간과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①걸ᄂ-:(步)’에 대해 ‘걸ᄂ-’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방언에서는 이전 시기의 ㄷ 불규칙동사들이 ‘ㄹ’ 어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¹⁵ 이러한 변화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도 있다. 閔元植(1982: 57)에서는 경북 문경방언에 ㄷ 불규칙동사 ‘①걸ᄂ-:(步), ⑤눌ᄂ-:(焦), ⑥듣ᄂ-:(聞), ⑨물ᄂ-:(問)’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¹⁶ ‘①걸ᄂ-:(步), ⑥듣ᄂ-:(聞), ⑨물ᄂ-:(問), ⑬분ᄂ-:(殖)’는 ㄷ 불규칙동사만이 존재한다.

¹⁷ 원문에는 어간 말이 ‘ㄹ’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교체의 양상으로 보아 어간 말이 ‘ㄹ’이라고 판단하여 고쳐 제시한다. 이하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¹⁸ 원문에서는 이들 어간 말이 ‘ㄹ’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에 근거하여 ‘ㄹ’ 어간으로 처리한다.

¹⁹ 원문 표기는 ‘ㄹ’으로 되어 있다.

3.2.2.5 서북방언, 동북방언

북한 지역 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의 변화에 대해 보고된 것은 찾기 어렵다. 다만 ‘㉞듣-(聞)’가 평안, 황해방언에서 규칙동사인 사실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김영배 1973, 1992: 346, 곽충구 1992: 325). 김영배(1998: 65)에서는 서북방언에서 ‘㉞문-(問), ㉞신-(載), ㉞분-(殖)’가 ㄷ 불규칙동사임에 비해 ‘㉞듣-(聞)’은 규칙동사임이 강조되었다.

한편 함경방언(안변, 덕원)에서 ‘들른다(聞)’같은 활용형이 보고된 바 있다(小倉進平 1944: 367). 이 활용형을 보면 ‘㉞들ㄴ-, 들-(聞)’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어형은 김영배(1998: 66)에서 부정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ㄷ 불규칙동사들은 영동, 동남, 전남방언에서는 발음이 ‘ㄹㄴ’인 어간으로, 전북, 전남방언에서는 ‘ㄹ’인 어간으로 바뀌었다. 제주방언은 ‘ㄹ’ 어간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서울방언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또 서울방언에서는 발음절이 ‘ㄹ’인 어간으로의 변화도 관찰된다. 북한 지역의 방언은 보고의 양이 적어서 확실한 경향을 말할 수 없다.

결국 실제 국어의 제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는 어간 형태가 변화되었거나 혹은 변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현실 국어에서 ㄷ 불규칙동사의 위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4. 語幹 變化의 類型과 過程

3장에서 이전 시기의 ㄷ 불규칙동사들이 현대국어에는 어떻게 반사되어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많은 ㄷ 불규칙동사 어간들이 현대국어에서 어간 형태의 변화를 겪었거나 변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실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의 대상은 당연히 현대국어 제방언을 포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모든 방언을 망라할 수 없다. 이에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서울방언을 중심으로 ㄷ 불규칙동사의 변화 유형과 그 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변화의 유형을 논의할 때 ‘㉞신- R(載)’는 제외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현대 서울방언에서 이 어간은 특이하게도 ㄷ 불규칙동사가 아니고 어간 발음이 ‘ㄹ’인 것과 ‘ㄹㄴ’인 것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 (9) a. 실:쿠 있다 · 실:쿠 와서 · 실:른다, 실어라, 실으면
b. 실:꾸 · 실:찌 마라 · 실:른다, 실어라, 실으면 · 실으니깐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서울방언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한국

방언자료집》에서 ‘실-는다, 실-고’ 항목을 조사해 보면 남한 전체에 걸쳐 이 어간의 기본형은 ‘실-’, ‘실-고’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ㄷ 불규칙동사가 ‘ㄷ’ 어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어간에 대해서는 ‘실꾸, 실른다, 시르라’같은 활용형을 보여 기본형 ‘실-’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남한 지역에서 어간 ‘실-’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실-’는 충청북도, 경상북도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보이므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방언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載}를 의미하는 어간의 변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변화 유형을 논할 때 별도로 처리해야 변화 유형을 세울 수 있다.

‘⑩ 실- R(載)’의 변화는 19세말 자료에서 발견된다.

- (10) a. 빅에 실코 장스차로 충청도로 가다가 <독립신문 1896. 9. 10>
 b. 그 선각과 그 짐을 화륜거에 실혀 각처에 파송하기로 정하였고 <독립신문 1896. 4. 7>
 c. 그 군스 실흔 군함이 항구에 드러오지 못하였다더라 <독립신문 1896. 4. 7>
- (11) a. 흔 사름이 場에서 말게 실을 실코 還家할식 <심상소학 3:33b>(1896)
 b. 그 궤를 슈례에 실스고 세 녀교를 토티워 가지고 드러가매 <경향보감 3:111>(1906)

그런데 표기상으로는 ‘실 + 평음’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실제 발음은 경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음 표기와 경음 표기가 같은 문헌 자료에 공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1b)에는 ‘실스고’로 되어 있지만 같은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12)처럼 평음으로 표기된 예도 있다.

- (12) 복건(福建) 빅가 우리를 실고 복안현(福安縣)식지 가기로 흘 제 <경향보감 3:93>

신소설인 《은세계》(1908)에도 이러한 예가 보인다. (13)의 예는 문맥도 거의 같고 용례가 나타나는 페이지가 매우 가까운데도 후행하는 어미의 표기가 다르다.

- (13) a. 남편을 교군에 실코 길을 써나가난디 <72>
 b. 그 남편을 교군에 실고 궁릉으로 갈 마음뿐이라 <71>

서울방언의 ‘실-:, 실-고:’는 19세기에 이미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더 이른 시기의 자료에는 어간 발음이 ‘ㄷ’인 ‘실-’로 생각되는 활용형도

보인다. 《朴通事諺解》(1677)까지 소급된다.

(14) 煤場에 슷 실라 갈 때에 <박통사언해 하:15b>

연평 바다로 돈 실너 가자논 노래나 한가히 부르며 <대한매일신보 1909.11.14>

(14)는 어간이 ㄷ 불규칙동사 ‘싯-’였다면 ‘시르라, 시르러’로 쓰였을 예들이다. 두 예 모두 ‘실러 가’와 같은 형태로만 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싯-’, 실-:’를 제외한다면 ㄷ 불규칙동사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단순화된다. 이전 시기에 ㄷ 불규칙동사였던 어간들 중 상당수가 형태 변화를 겪었다. 변화 방향은 두 가지인데 말음이 ‘ㄹ’인 어간으로 또는 말음절이 ‘ㄹ’인 어간으로 바뀐 것이 주요한 변화이다.²⁰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한글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4.1. ㄷ 불규칙 유지

서울방언에서 현재도 순수히 ㄷ 불규칙동사임이 확인된 어간은 다음의 다섯 개다. 1음절 어간들은 대체로 기본어휘에 속하는 것들이다.

- ①걸:-:(步), ⑥듣-(聞, 效), ⑨묻:-:(問), ⑮깨닫-(覺), ⑰일컸-(謂)

4.2. ㄷ 불규칙 > ㄹ

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③긴:-:(汲), ⑬분:-:(澗, 殖), ⑯젼:-:(鹽)’는 ㄷ 불규칙동사라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간 말음이 ‘ㄹ’인 ‘길:-, 붙:-, 절:-’도 공존하고 있다. 각 어간의 변화 과정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사된 서울방언 자료 중 ‘길:-’의 활용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15)이다.

(15) 길:라 간다

‘길어 먹는다’와 같은 예도 조사되었지만 이 활용형의 어간은 ‘길:-’일 수도, ㄷ 불규칙동사인 ‘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의 예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길:라 간다’는 자료상으로는 《노걸대언해》(1670)까지 소급된다.

(16) 물 길라 가라 <노걸대언해 상:31b>

²⁰ ‘⑤늬:-:(焦)’ 역시 ‘늬:꾸’같은 활용형이 조사되었지만 이 외에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언 차용일 가능성도 있다.

같은 예문이 이전 시기에 간행된 《번역노걸대》(1517)에는 ㄷ 불규칙동사의 활용형으로 나타나 있다.

(17) 물 기르라 가라 <번역노걸대 상:34b>

(16, 17)로 보아 ㄷ 불규칙동사 ‘긴:’의 변화는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²¹

19세기 말에 오면 자음어미 앞에서도 이형태 ‘길’이 나타나는데 이로써 새로운 어간 형태 ‘길:’가 완성된다.

(18) 물을 길다가 <독립신문 1896. 4. 7>

물 길너 가서 <독립신문 1896. 6. 27>

‘⑬분:-(潤, 殖)’에 대당되는 ‘불:’, ‘⑱전:-(鹽)’에 대당되는 ‘절:’의 변화 과정을 한글문헌 자료를 통해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절:’는 변화된 형태가 표준어로 채택되었고 ‘불:’ 역시 표준어로까지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실제 共通語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19a)는 {潤}의 의미로, (19b)는 {殖}의 의미로 현대국어에서 ‘불:’가 쓰인 예이다.

(19) a. 시체는 피부가 물에 불고 얼굴이 형편없이 허무러져 보기에다 끔찍했다 <이태준 외, 달빛에 길을 물어(오경훈, 우도), 한국경제신문사, 1995>

b. 갈밭으로 올라서도 물은 자꾸 불기만 해서 밭끝까지 잘름잘름했다 <이주홍, 피리부는 소년, 삼성미디어, 1991>

과정은 문증되지 않지만 현대국어를 보면 ‘⑬분:!’ > 불:-, ‘⑱전:!’ > 절:’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다.

ㄷ 불규칙동사가 말음이 ‘ㄹ’인 어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후기중세국어의 몇몇 공존형도 이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後期中世國語에서 {曰}을 의미하는 동사로 ‘④근-L!’와 ‘글:’가, {厭}을 뜻하는 ‘⑯아철-LH’와 ‘아철:’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들의 관계도 ㄷ 불규칙동사의 어간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후기중세국어에서 {曰}을 의미하는 어간은 ㄷ 불규칙동사인 ‘근:!’도 있지만 어간 말음이 ‘ㄹ’인 ‘글:’도 있다. (20)는 ‘근:!’의, (21)은 ‘글:’의 활용예이다.

²¹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은 앞서 든 (14)의 ‘煤場에 숫 실라 갈 때예 <박통사언해 하:15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 **곧느니잇가 LLHLH** <월인석보 19:1a>, **곧느녀 LLH** <변역노걸대 상:6b>,
ㄹ로샤 LLH <월인석보 23:67a>, **ㄹ를 운云** <광주천자문 27a>
ㄹ로디 LHH

- (21) **곧 알 日** <광주천자문 11a>, <신증유합 상:14b>(1576)

ㄷ 불규칙동사인 ‘곧-!’와 어간 말음이 ‘ㄹ’인 ‘곧-’는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가장 확연하게 구분된다. ㄷ 불규칙동사인 ‘곧-!’에 어미 ‘-을/을’이 결합되면 (20)처럼 ‘ㄹ를’이 되지만 ‘곧-’에 어미 ‘-을/을’이 결합되면 (21)처럼 ‘곧’이 된다. ‘곧-!’와 ‘곧-’의 관계는 전자를 구형으로, 후자를 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ㄷ 불규칙동사 ‘¹⁶아철-LH(厭)’와 ‘아철-’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²² 각 어간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2) **아철-LH**: 아철고, 아쳐러, 아쳐라, 아쳐를시니, 아쳐로물

- (23) **아철-**: 아철씨, 아철가, 아철며, 아철 염厭²³, 아철시라

4.3. ㄷ 불규칙 > 르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방언에서 ‘¹⁴다달-(着), ¹⁹결:-(油)’는 ㄷ 불규칙동사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간 말음절이 ‘ㄹ’인 ‘다다르-, 겨르-’도 공존하고 있다. ‘¹⁹결:-(油)’와 ‘겨르-’의 활용 예를 보이면 (24, 25)과 같다.²⁴

²² 한편 重刊本 《杜詩諺解》(1632)에서는 어간 말음이 ‘ㄹ’인 ‘아철-’도 발견된다.

烈士는 苟且히 어두물 아철코 <杜詩諺解 重刊本 16:20a>
 甚히 고기의 비류를 먹디 아철노라 <杜詩諺解 重刊本 19:36a>

이들은 원간본에서 각각 ‘아철고, 아철노라’로 나타났던 것들이다. ‘ㄷ’ 앞에서도 어간말의 ‘ㄹ’이 탈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철노라’의 어간은 ‘아철-’일 수 없을 것이다. ‘끓-L(沸)’가 ‘곧느’처럼 활용한 예를 볼 때 어간말 자음을 ‘ㄹ’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그러면 또 다른 용례 ‘아철코’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罪人을 곧느 LL 가마에 드리티느니라 <월인석보 1:29a>

‘아철-’는 다른 문헌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우므로 중간본 《杜詩諺解》에 나타난 동남방언일 가능성이 있다.

²³ 광주판 《千字文》(35a)의 예이다.

²⁴ 표기를 다르게 했지만 모음어미 ‘-아/어’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한 형태는 두 어간이 같다.

(24) 걸-!: 걸:구 있다, 걸어가주구, 걸으면

(25) 겨르- : 겨르는 게, 겨러서, 겨르니깐

‘다다르-’는 19세기말 자료에서 확인되며 ㄷ 불규칙동사인 ‘㉔다담-(着)’를 제치고 표준어로 채택될 만큼 그 세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26) 밤이 다토록 가서 칩문을 지나 흔 곳에 드다르는 족히 피엿다가 갈만
흔지라 <턴로력명 2:136b>(1895)

한편 현대 서울방언에서 ‘깨담-’는 여전히 ㄷ 불규칙동사이지만 이 어간 역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였음이 19세기말 자료에서 확인된다.

(27) 이제야 내가 씩다르도다 <턴로력명 2:162b>(1895)
어이 햏야 지금이야 씩다르는지 <독립신문 1896. 11. 26>

(27)의 예에서 19세기말에 ‘깨다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담-!, 깨담-!’에서 ‘다다르-, 깨다르-’로의 변화는 모두 19세기말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방언에서 ㄷ 불규칙동사는 기존의 교체 양상을 고수하는 어간도 있지만 활용 패러다임이 바뀌어 어간 형태가 변화된 부류도 있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다. 하나는 말음이 ‘ㄷ’인 어간으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음절이 ‘르’인 어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변화 시기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17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고 후자는 현대국어 직전에 일어난 변화이다.

5. 結 論

본론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변화의 기제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 ㄷ 불규칙동사의 기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기중세국어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20여개의 ㄷ 불규칙동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①걸- R!(步), ②걸- R!(織), ③긴- R!(汲), ④근- L!(臼), ⑤늘- R!(焦), ⑥든- L!(聞), ⑦든- R!(落), ⑧든- L!(走), ⑨묻- R!(問), ⑩싣- R!(載), ⑪싣- R!(得), ⑫흔- R!(散), ⑬분- R!(潤, 殖, 脹)

⑭다든-LL!(着), ⑮씨든-HL!(覺), ⑯아천-LH(厭), ⑰일큰-LL!(謂)

⑱*전-R!(鹽), ⑲전-!(油), ⑳연-R!(配)

이들은 현대국어에 오면서 일부는 死語가 되었고 死語가 되지 않은 어간들도 어간 형태가 변화된 것이 많다. 남한의 육지 방언에서는 말음이 ‘ㄷ, ㅌ’인 어간으로 바뀐 경우가 많고 제주방언에서는 ‘ㄷ’ 어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 서울방언에서는 말음절이 ‘ㄹ’인 어간으로의 변화도 관찰된다.

자료 조사가 가능한 서울방언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말하면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다. 하나는 말음이 ‘ㄷ’인 어간으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말음절이 ‘ㄹ’인 어간으로 변화이다. 전자의 예는 ‘③긴-R!(汲) > 길:-, ⑬분-R!(潤, 殖, 脹) > 분:-, ⑱*전:-R!(鹽) > 절:-’이고 후자의 예는 ‘⑭다든-LL!(着) > 다다르-, ⑲전-!(油) > 겨르-’이다. ‘절:-, 다다르-’처럼 이러한 변화가 표준어에 반영된 예도 있다.

ㄷ 불규칙동사가 겪은 이 두 가지 변화는 해당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다르다. 말음이 ‘ㄷ’인 어간으로의 변화는 17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일어난 변화이지만 말음절이 ‘ㄹ’인 어간으로의 변화는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기제를 현재로서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 다만 ㄷ 불규칙동사가 ‘ㄷ’ 어간으로 바뀐 유형에 대해서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ㄷ 불규칙동사 ‘긴-(汲)’가 이런 변화 과정을 비교적 충실히 보여 준다.

앞에서 ㄷ 불규칙동사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역사적으로 ‘으’ 탈락이 일어나는 예를 관찰한 바 있다. 설명의 편의상 앞서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본다.

(28) a. 물 기르라 가라 <번역노걸대 상:34b>(1517)

b. 물 길라 가라 <노걸대언해 상:31b>(1670)

《翻譯朴通事》(16세기 중엽)의 해당 부분이 현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그 후에 간행된 《朴通事諺解》(1677)에 같은 유형의 예가 보인다. (29)의 ‘실라’는 ㄷ 불규칙동사였다면 ‘시르라(載)’여야만 한다.

(29) 煤場에 숫 실라 갈 때에 <박통사언해 하:15b>

(28, 29)의 예에서 ‘ㄷ 불규칙 > ㄹ’로의 변화는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그 시발점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으’ 탈락이 관여된다.

(30)에서 보는 것처럼 ㄷ 불규칙동사와 어간 말음이 ‘ㄷ’인 용언은 모음어미 ‘아/어’가 결합된 활용형이 같기 때문에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같아

지면 패러다임이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된다. ㄷ 불규칙동사인 ‘묻-(問)’와 ‘물-(辨償)’을 예로 들어 본다.

(30) 묻다 RH	물다 RH
무러 LH	무러 LH
무르면 LHH	물면 RH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까지 형태가 바뀌게 되면 어간 형태 변화가 완성된다. ‘길-! > 길’은 이러한 변화 과정까지 보여 준다. 앞서의 예를 다시 가져온다.

- (31) 물을 길다가 <독립신문 1896. 4. 7>
 물 길너 가서 <독립신문 1896. 6. 27>

또 동남방언과 서남방언, 영동방언에서 보이는 ‘ㄷ 불규칙 > ㄹㅎ’ 변화는 자음어미 활용형과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의 혼효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어사에서 ㄷ 불규칙동사의 시작에는 어간 성조가 조건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중세국어에서 1음절 ㄷ 규칙동사와 ㄷ 불규칙동사는 어간 성조 면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후기중세국어 1음절 용언 어간 중 ㄷ 규칙동사인 어간의 성조는 평성이 10개, 거성이 하나(예: 뜯-~뜯-), 상성이 하나이다(예: 얻-). 한편 ㄷ 불규칙동사는 유동적 상성인 것이 12개이고 불규칙적인 평성인 것이 3개다(유필재 2003).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변화를 보이는 어간이 있으므로(곧! > 곧-, 아철! > 아철-) ㄷ 불규칙동사의 성립은 15세기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으로 소급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희숙. (1993). 장흥지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p, t, s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 15 (조선대), 35-52.
 광충구. (1992). 황해도 방언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南北韓의 方言研究. 慶雲出版社.
 김규남. (1991). 전북 방언의 ㅂ불규칙 활용과 재구조화. 어학 18 (전북대).
 김봉국. (2001). 강원도 방언. 방언연구회 編著. 方言學事典. 태학사.
 김봉모. (1991). 부산 동래 지역어의 특성. 韓國文化研究 4 (부산대), 167-190.
 김성규. (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381-394.
 金聖鐸. (1978). 三陟方言研究. 關東향토문화연구 2 (춘천교대).

- 金聖鐸. (1980). 高城地方 方言研究. 관동향토문화연구 3 (춘천교대).
- 金聖鐸. (1981). 襄陽地方의 方言研究, 관동향토문화연구 4 (춘천교대).
- 김영배. (1973). 평안방언의 ‘듣다’[聞]에 대하여. 양주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탐구당.
- 김영배. (1992). 平安方言의 연구 현황과 과제. 南北韓의 方言研究. 慶雲出版社.
- 김영배. (1998). 서북방언.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 金永泰. (1985). 居昌地域語 研究. 慶南大出版部.
- 김옥화. (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정대. (1998). 경남방언의 성격.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김 현. (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김형춘. (1985). 진주지역어의 불규칙활용. 박태권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새결.
- 閔元植. (1982). 聞慶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충남대 석사논문.
- 朴明淳. (1986). 居昌地域語의 變則活用に 對한 研究 : p-, s-, t-, ja- 및 li-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을 中心으로. 淸州師大論文集 18, 9-40.
- 박성중. (1998). 강원도 방언의 성격과 특징.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裴秉仁. (1983). 山淸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 音韻體系와 用言活活時의 音韻現象을 中心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배주채. (1998). 고흥방언 음운론. 태학사.
- 서보월. (1988). 송천동의 방언음운론. 안동문화 9 (안동대), 167-192.
- 蘇江春. (1983). 南原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전북대 석사논문.
- 申承遠. (1982). 義城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 活用을 中心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 沈炳起. (1985). 任實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전북대 석사논문.
- 安秉禧. (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 유필재. (2003).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 성조와 기저형 설정. 어학연구 39.1, 91-110.
- 유필재. (2005). ㄷ 불규칙동사의 내적 재구. 語學研究 41.3, 635-654.
- 유필재. (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 이기갑. (2001). 서남방언. 방언연구회 編著. 方言學事典. 태학사.
- 李基文. (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 李基文. (1987). 國語의 語源 研究에 對하여. 第一回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李基文(1991)에 재수록]
- 李基文. (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 李東華. (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 석사논문.
- 李崇寧. (1978). 濟州道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 이현희. (2002). 중세·근대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 문법과 텍스트, 139-155.
- 정승철. (2001). 제주 방언. 방언연구회 編著. 方言學事典. 태학사.
- 曹成貴. (1983). 沃川方言研究 - 특히 音韻 現象을 中心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趙信愛. (1985). 安東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영남대 석사논문.
 崔明玉. (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p-, s-, t- 變則動詞를 중심으로. 國語學, 14, 149-188.
 崔泰榮. (1981). 全州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전북대 박사논문.
 韓榮均. (1990). 不規則活用,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다. 東亞出版社.
 한재영. (1997). 어간교체형의 변화. 國語史研究, 777-814. 태학사
 菅野裕臣. (1995). 중세한국어 ㄷ번격용언 3제 -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The 17th Conference of AKSE 발표요지.
 小倉進平.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King, R.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Hall.
 Martin, S.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Charles E. Tuttle Company.
 Trask, R. L. (1996). *A Dictionary of Phonetics and Phonology*. Routledge.

<사전류 및 기타>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南廣祐. (1997). 《教學 古語辭典》. 教學社.
 사회과학원어학연구소. (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劉昌惇. (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한국방언자료집 I ~ IX》. (1995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 (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小澤重男. (1983). 《現代モンゴル語辭典》, 大學書林.

유필재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pjyoo@mail.ulsan.ac.kr

접수일자: 2009. 3. 12

수정본 접수: 2009. 6. 15

게재결정: 2009. 6. 17